

## 1980년대 전북 문학의 운동성 연구

- ‘남민시’ 동인을 중심으로 -

문 신\*

논문접수일: 2019. 10. 26.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남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br>생명운동 |
| 2. 80년대 문학 현상과 전북 문학        | 4. 맺음말                      |
| 1) 문학의 주체 형식으로서의 동인지        | 참고문헌                        |
| 2) 문학적 당면 현실로서의 삼민주의        | <Abstract>                  |
| 3. 남민시 동인의 문학 운동과 지역성       |                             |
| 1) ‘남녘의 지평’ 확산을 위한 문학<br>운동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80년대 민족문학 및 민중문학의 흐름 속에서 전북의 특수성으로 ‘남민’ 의식이 지닌 문예학적 운동성을 탐색하고 있다. 198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방위에 걸쳐 운동성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문학 부문에서는 비정기간행물 무크를 기반으로 한 소집단운동과 지역에 기반을 둔 운동이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전북에서 결성된 남민시 동인도 1980년대 문학운동의 형식과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중심에 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남민’이라는 민중주체를 발견하고, 이들의 실존과 생존의 근거가 되는 ‘들(판)’을 통해 문학 운동을 전개해간다. 그렇다고 해서 남민시 동인이 전북의 민중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전북 민중의 삶

\*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E-mail: mulbuk1@gmail.com

이 1980년대 우리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현실의 구체적인 국면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전북 민중의 삶을 회복하고 남민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남민시 동인은 남민 의식으로 상징되는 전북의 민중 역량을 형상화함으로써 문학을 통해 당면 현실에 대응하고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가는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전북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남민시 동인은 이후 전북에 새로운 문학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문학을 통해 사회역사적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남민시 동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북작가회의는 1990년대 이후 전북 지역 문학의 한 축으로 성장했고, 문학의 생명력은 사회역사적 당면 현실에 대한 대응이자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남민시 동인, 문학운동, 전북 지역, 1980년대, 남민 의식, 민족문학, 문학 동인

---

## 1. 머리말

문학이 인간의 삶을 다루는 언어 예술이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명제는 세 가지 문학적 사실을 포함한다. 첫째, 문학은 언어를 도구화하여 창작되고 소통된다는 점. 둘째, 문학은 인간이 창작과 감상의 행위 주체라는 점. 셋째, 문학은 인간의 삶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그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 삶의 ‘현실적 조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문학 스스로가 또 하나의 현실적 조건을 창조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 담론에서 현실적 조건을 창작 방법론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실적 조건이 인간의 인식론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 모두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현실적 조건은 그 현실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유와 행위의 지평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현실을 인식하는 도구가 된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조건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 장치이면서 존재하는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당대 인간의 실존 조건을 규정하고 언어와 사유와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화된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조건은 당대의 유무형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법률이나 규칙으로 대변되는 유형의 권력과 사회역사적 윤리 같은 무형의 권력이 당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현실적 조건이 된다.<sup>1)</sup> 따라서 문학이 인간의 삶을 다룬다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과 어떤 식으로든 밀접하

게 연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럴 때 문학 담론에서 인간이 행위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문제를 문학의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을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하게 되면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다루는 문학 담론을 담아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실을 실체가 아닌 심리적 문제로 부차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실은 물리적인 바탕에 인간 내면의 다양한 변화를 정교하게 연결시킨 구성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실은 공시적 차원의 단면이 아니라 통시적인 인과의 연쇄에 가깝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크든 작든 그 기원을 감추고 있는데, 그러한 까닭에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원을 살피는 일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문학 현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문학의 구성 요소들—창작주체, 언어, 독자 그리고 문학적 대상이 되는 내용 요소들—이 모두 현실적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것들 스스로가 현실적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는 현실적 조건을 전제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사유와 상상의 언어표현 과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오랫동안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존재 근거를 미메시스(mimesis)적으로 바라본 관습적 태도는 문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현실의 충실한 반영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조건의 반영이 곧장 문학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조건은, 문학의 경우 언어를 매개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언어는 현실과 다르게 철저히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문학이 현실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예술가의 재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재구성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당대적 언어의 관습과 스타일상의 특징에 의존한다. 물론 위대한 예술가는 이러한 당대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초월은 당대적인 관습의 발판 위에서 가능하다.<sup>2)</sup>

1) 법이나 제도 같이 성문 형식으로 제출된 권력구조 속에서 인간 삶이 영위된다는 점에서 현실적 조건은 유형의 권력에 일차적으로 소속되지만,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유형 권력에 대한 공포 같은 심리적 요인도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 조건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인간 삶은 유형 권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무형 권력을 자기 삶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권력이 현실적 조건의 ‘이념’이라면 무형 권력은 그것의 ‘실천’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현실적 조건이 되는 유무형의 권력은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재구성의 본질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언어로 표현된 문학 텍스트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현실적 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경험적 현실을 언어적 현실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환의 과정이 예술적 재구성 과정이다. 이를테면 감각 경험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은 “불가피하게 당대의 언어의 관습과 스타일상의 특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이 1980년대 전북의 문학 운동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조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당대의 언어의 관습과 스타일’을 방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를 통한 현실의 재구성이 당대 현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단순히 1980년대 전북 지역의 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현실적 조건을 해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현실적 조건은 ‘이미’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고, 인간은 일상적으로 그 조건에 적응하고 그 조건을 재현한다. 여기서 나아가면 현실적 조건을 재구성하는 예술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인간은 경우에 따라 경험적으로 주어진 현실적 조건을 교정하고 재구축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실적 조건이 인간 삶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간 삶을 억압하는 경우이다. 에리히 에우얼바하가 “위대한 예술가는 당대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그 초월은 당대적인 관습의 발판 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이러한 발화에는 진정한 예술가라면 경험적으로 주어진 당대의 현실적 조건을 ‘초월’해야 한다는 당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예술가는 “기존현실 속에서 기존 현실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는 사회 혁명가의 입장에 매우 가까이”<sup>3)</sup>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1980년대라는 당대성 속에서 사회 혁명가적 입장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학적 운동성에 관심을 갖는다. 현실적 조건을 타개하고 새로운 현실적 조건을 구축하는 일은 혁명가적 의미에서의 ‘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가 본질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운동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경우 운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에서 사유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적 과정, 즉 변화 일반을 의미한다.<sup>4)</sup> 그렇다고 해

2) 에리히 아우얼바하, 김우창·유종호 옮김, 『미메시스: 서구문학에 나타난 현실묘사』, 민음사, 1979, 7쪽

3) 같은 곳

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1991, 260쪽

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가 ‘방향’과 ‘힘’을 작동시킴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나

서 운동을 ‘발전’에 가까운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은 자체 내에서 새로운 대상과 구조의 합법칙성이 생겨나는 특징이 있는데, 1980년대 문학 운동에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980년대 문학 운동이 현실적 조건을 돌파해나갈 역량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현실적 조건이 운동을 압도할 만큼 막강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1980년대 문학 운동의 한계를 포함하여, 이 논문은 전북 문학 운동의 역사적 필연성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80년대 문학 현상과 전북 문학

1980년대 문학은 80년 5월의 봄으로 상징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충격으로 시작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군부독재와의 싸움, 민주화를 향한 열망 등이 가세하면서 현실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점철되었다. 특히 신군부에 의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등 정기간행물이 폐간되면서 문학인들은 새로운 문학 활동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sup>5)</sup>, 이렇게 “‘불온스런 거침’을 잃은 현실참여 내지 자유주의 문단은 정간물 등록을 앓고도 1년에 한 번씩은 낼 수 있는 무크라는 편리한 출판형태를 통해 5공에 대한 문학 게릴라전”<sup>6)</sup>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 문학 운동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은 ‘위치’를 확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위치는 현실적 조건의 ‘중심’이자 그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아우른다. 따라서 운동성은 현실적 조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평의 방향을 설정한 후, 그 지평을 향해 의지를 실현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남민시 동인은 민중을 ‘주체’로 하여 사회역사적 억압과 경제적 소외라는 전북 지역의 현실적 조건을 ‘위치’로 삼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평을 ‘들’로 설정한 후, ‘문학’의 동력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 자체가 운동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80년 7월 31일 1백72개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는 이와 같이 폐간 당사자들도 전혀 모르게 단행됐다. 사회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날 조치에 대해 문공부는 등록취소 이유로 각종비위·부정·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요인이 돼오거나 음란·저속·외설적이거나 사회범죄·퇴폐적 내용, 계급의식의 격화·조장·사회불안조성, 발행목적 위반 내지 법정발행실적 미달 등을 들었다.” 이경철, “『창비』 『문지』 잘라라-80년 정간물 폐간 회오리”, 중앙일보, 1991. 5. 3(<https://news.joins.com/article/2559359>)

6) 같은 곳

## 1) 문학의 주체 형식으로서의 동인지

게릴라전 형식의 문학 운동은 중심을 해체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한 소규모 문학 활동을 방법론으로 실천하였다. 그 구체적인 활동은 동인을 구성하여 무크 형태로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81년 광주에서 결성하여 그 해 7월에 동인지 1집 『이 땅에 태어나서』를 낸 5월시 동인, 1983년 김창규, 김용락, 도종환, 배창환 등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결성된 분단시대 동인, 1985년 전주에서 백학기, 이병천, 정인섭, 박두규, 박배엽, 최동현, 박남준 등이 결성한 남민시 동인 등 지역을 기반으로 문학 동인들이 속속 결성되었다.<sup>7)</sup> 이러한 소집단 문학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1980년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문화적 대응”<sup>8)</sup> 의지와 “기존의 문학에 대한 관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뜻을 밝히려는 이들의 노력”<sup>9)</sup>이 작용한 결과였다.

근래의 동인 운동들을 소집단 운동으로 규정하는 전제의 이면엔 그것이 일관된 문학적 이념과 형태를 지향하며 생성시키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이란 뜻이 들어 있다. 그 이념과 형태는 외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운동자들이 운동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배태하고 튼튼하게 형성시킨 것이다. 기존의 문학에 대한 관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뜻을 세우려는 이들의 노력은, 그것이 막연히 자기 유희에 빠지지 않는 한, 현실의 구체적인 집단과 맥락을 가진다. 문학적으로는 과거의 문학관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문학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은 과거의 문학관이 채 조명하지 못했거나 명료하게 디디지 못한 현실의 생활 집

7) 1980년대가 시의 시대, 동인지와 무크의 시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거니와, ‘운동으로서의 동인활동’을 표방한 시 동인들이 다수 출현한 것도 주목할 현상이다. 대표적인 시 동인으로 시와 경제(1981~1982), 1970년대부터 동인활동을 시작했던 반시(1976~1983), 삶의 문학(1978~1988), 목요시(1979~1986) 등이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이전까지 시 동인지의 주요 성격이었던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로서 안정적인 발표지면의 확보라는 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분위기 조성이라는 외적 효과에 기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이들은 당대의 사회 변혁운동 및 문화운동과의 연관 속에 새로운 시의 개념과 창작방법을 실천해나갔다는 점에서, 1970년대 시 동인 활동과 구분되는 ‘운동으로서의 시 동인’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심선옥, 『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제50집, 2017, 458쪽

8)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백낙청·엄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대계3』, 창작과비평사, 1984, 11쪽

9) 정과리, 『소집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1985, 45쪽

단에 깊이 몸담음으로써, 그 집단의 현상 안주를 의식적으로 깨뜨리고, 집단 자체 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삶의 힘을 일깨움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삶에의 지적·감정적 열망의 총체를 표면에 부상시켜, 사회 형성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움직이게 한다.<sup>10)</sup>

이렇게 1980년대 문학 동인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소집단 운동을 전개해나간 것은 “역사적·사회적 체험의 맥락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강조”이며 “문학과 현실을 하나로 겹쳐 보며 그 안에서 의미를 길어내”<sup>11)</sup>겠다는 창작방법적 시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와 시도들의 이면에 1970년대까지 줄기차게 시도되었던 민족문학 운동의 소시민성에 대한 반성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채광석은 작가를 포함한 지식인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중간층으로서의 소시민성과 지식인으로서의 역사적·사회적 책임 인식에 따른 민중지향성이 바로 그것”<sup>12)</sup>이라고 하면서 민중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민중문학은 지식인 문학인들의 경우 정체되거나 후퇴하여 온 것이 우리의 저간의 실정”<sup>13)</sup>이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인 문학의 소시민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시민적 전망과 성격을 철저히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관과 민중의식으로 무장된 ‘실천적 운동성’(전체성)과 ‘구체적 현장성’(개별성)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적 작업방식이 아닌 지극히 조직적 방식에 의해서”<sup>14)</sup>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 소시민 지식인 작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노동하는 생산대중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위해 ‘집단창작’이 제출된 것은 1980년대 문학현상으로 대두된 동인활동과 무크지의 활발한 발간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1970년대까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전문 문예지를 중심점으로 한 지식인 문단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백낙청, 최원식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창작과 비평』 그룹이 1970년대 이후 줄곧 “주체적 측면에서는 민중적 입장을, 객관적 측면에서는 분단극복의 문학을 주장”하는 민족문학론을 견지해왔는데,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의 민중에 대한 과학적이

10) 같은 곳

11)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4』, 시공사, 2000, 393쪽

12) 채광석,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김병걸·채광석 편,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100쪽

13) 같은 책, 101쪽

14) 이성욱, 『소시민적 문학론의 탈락과 민족문학론의 분화』, 『사회와 사상』, 1989년 가을, 한길사, 1989, 314쪽

고도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했고, 따라서 운동의 이론이나 조직 또는 작품생산에 있어서 민중의 주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sup>15)</sup>라는 한계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전개해오던 민족문학 운동은 1980년대 들어 문학 창작 주체로 ‘민중’을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그 내용 면에서도 분단문제를 포함한 ‘민중’의 삶에 보다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실천적 향방이 바로 소집단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앞 연대의 문학적 성과를 보다 심화해 나가려면 그들 자신의 문학적 통합력 형성에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제 세력의 정당한 자기전개가 이뤄져야”<sup>16)</sup>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1980년대 문학 현상 속에서 전북에서도 남민시 동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남민시 동인은 1985년 『남민시』 1집을 내면서 ‘서문’에 앞서 동인지에 실린 시 가운데 “우리가 그 손에/바칠 것을 받을 때까지/이곳에 죽도록 모여 살아서/마른 들녘으로 저 무덤들을 메고 다니냐/뜨건 밥 피눈물은 끝내/나누어 먹겠네, 아픈”(정인섭, 『한국 무덤산』)을 세워놓았다. 이는 남민시 동인의 시대 인식의 한 단면을 암시해줌과 동시에 이들의 시적 지향과 동인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여’, ‘들녘’, ‘무덤’, ‘밥’, ‘피눈물’ 같은 시어들이 ‘나누어 먹겠네, 아픈’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시는 1980년대 민중의 삶과 민족의 운명을 공동체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다. ‘서문’은 민중 주체로서 민족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보다 간곡하게 그러나 결기 있게 풀어낸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모여 시작하는 문학에의 뜻담음은, 압록강이나 원산, 또한 奉天이나 한탄강이 결국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들 정신의 본바닥 남녘의 지평에 연닿아 있음을 실감케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남녘 땅에서 더불어 출렁이며 만나는 추억과 역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려니와, 견디기 힘든 그 자체로의 역동성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그리움에 대한 치열함과 어우러져 이 나라 산천이 되고 푸른 하늘이 되는 것이니, 시 쓰는 우리들의 한결같은 뜻이 여기에 있다.<sup>17)</sup>

15) 백낙청,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김병걸·채광석 편, 앞의 책, 38쪽

16) 채광석, 『부끄러움과 힘의 부재』,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2』, 창작과 비평사, 1983, 52쪽

17) 백학기 외, 『‘남민시’ 1집을 내며』, 『남민시1: 들 건너 사람들』, 동문선, 1985, 4쪽

남민시 1집 서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들 동인들이 “남녘의 지평에 連닿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詩는 곧, 온갖 것, 詩야말로 온갖 것을 할 힘이 있음”도 따로 강조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남민시 동인의 존재론적 근거와 운동의 동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압록강이나 원산, 또한 봉천이나 한탄강”으로 표상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중적 삶의 지평이 ‘남녘’으로 표상된 전북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남북한을 하나로 포함하는 당대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나아가 만주 지역 ‘奉天’을 포섭하는 역사적 지평의 또 다른 축으로 ‘남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1980년대 남민시 동인에게 역사 발전의 주체로서 민중은 민족의식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을 아우르는 “우리들 정신의 본바닥”에 관한 담론이라거나 분단 조국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치열함” 등이 “어우러져 이 나라 산천이 되고 푸른 하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족의식 속에서 발견한 민중의식이다. 1980년대에 민족자결로서의 민족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민중에 의한, 민중지향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민중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운동은 세계와 역사라는 맥락에서 인정되고 공인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sup>18)</sup>라는 동시대의 운동성을 남민시 동인은 스스로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가 가는 길은/뺏길도 사라지고/아버가 건너야 하는 십리 길 물길/...../남북, 물길로 끝내 달아야 할/아버가 가는 길 십리 길 물길”<sup>19)</sup> 같은 민족과 민중을 아우르는 작품의 당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민시 동인들에게 민중의 민족의식은 1980년대의 운동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문학적 당면 현실로서의 삼민주의

남민시 동인들이 인식한 1980년대가 민중 주체의 민족의식이 되었던 것은 1980년대라는 당대성의 발생론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충격은 동시대 지식인, 문인들에게 시대와 역사 그리고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였다. 특히 신군부의 반민주적 폭압을 목격한 문인들은 1970년대부터 줄곧 강조했던 반외세, 민족통일 등의 민족자결의 문제가 민

18) 안병무, 『민족자결의 민족주의 운동』, 『실천문학』 제5권, 실천문학사, 1984, 112-113쪽

19) 백학기, 『남북』, 『남민시1: 들 건너 사람들』, 동문선, 1985, 26쪽

주주의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운동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문영은 80년대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정신으로 민족, 민주, 민중, 평화 등 네 가지를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실현 과정은 첫째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둘째, 민주주의를 통해 민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셋째, 민중 문제 해결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이룩해야 함을 강조했다.<sup>20)</sup>

그러나 운동이 주체가 이념을 실현해가는 과정<sup>21)</sup>이라고 할 때, 80년대의 문학 운동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볼 때 ‘현실생활의 역사적 운동’(오늘날의 용어로는 민족·민중·민주 운동이 될 것이다)의 ‘전방’에서 있지도 못하며 ‘문학자’는 ‘문학 운동의 최량의 결정적인 투사’가 되어 있지도 못한”<sup>22)</sup> 상태였다. 문학 운동이 민족·민중·민주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와 문학인이 그것들을 운동으로 실현해야 할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자의식은 남민시 동인에게도 수용되었다.

이 시대의 구조적 모순에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은 실로 어느 문학보다도 감동적이다. 문학적 상상력을 능가하는 격한 감동으로 엄습해오는 행동적 삶의 광휘는 사실상 문학행위의 본질을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이 이러한 당면한 상황의 당위적 행동 논리를 포용할 수 있을 때 문학은 스스로를 구제하고 편협한 자기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따라서 우선 시작해야 할 일은, 농경사회의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이 지역의 정서 속에서 진행되어온 민중사가 가지는 지속적 내연적(內燃的) 의미에 근간을 두고 시적 자료를 재정비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겨레의 바른 정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적 형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sup>23)</sup>

남민시 동인은 1986년 2집 『빈들에 쓰러져 우는 사람아』를 내면서 ‘동인의

20) 이문영, 『80년대의 본질과 민주화』, 『민중』 제2권, 청사, 1985, 108-110쪽

21) 이재현, 『민중문학 운동의 과제』, 김병걸·채광석 편, 앞의 책, 267쪽

22) 같은 책, 270쪽

23) 박두규 외, 『남민시 2집을 내면서』, 『남민시2: 빈 들판에 쓰러져 우는 사람아』, 청하, 1986, 8-9쪽

말'에서 “구조적 모순”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행동적 삶의 광휘”를 발견하고, 그것이 “문학행위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아울러 남민시 동인은 “당면한 상황의 당위적 행동논리”를 “시적 형상화 작업”의 바탕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당면적 상황’이란 198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모순, 다시 말해 파쇼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여기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침묵으로 혹은 암암리에 묵인한 미국도 포함된다.—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위적 행동논리’로는 1980년대 현실생활의 역사적 운동인 민족운동, 민중운동, 민주운동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삼민운동은 1980년대 문학이 민중성, 자주성, 반미성, 민족성을 구축하는 근거가 되었다.

삼민운동 중에서 최종 목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1984년 4월 14일 발족한 ‘민중문화운동협의회’의 창립발기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은 4월 혁명으로 각성된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비롯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삶의 문화가 자본과 권력의 왜곡된 논리에 복속하는 노예화의 문화로 전락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문화독점구조의 극복은 문화의 창조와 전파와 향유의 주권이 민중에게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문화적 민주화의 추구에 다름아니다. 또한 민주화는 민중문화 발전의 관건이자 기본 전제이다”<sup>24)</sup>라고 하여 민족민중 운동의 토대이자 목표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삼민운동 중에서 실제로 당위적 행동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민중운동과 민족운동이며 민주주의 운동은 이러한 실천운동을 가능하게 본질적 요소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민중의 삶과 민족의 모순을 내용으로 삼는 문학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험했던 민주화 혹은 민중시대에 대한 희망의 좌절”<sup>25)</sup>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운동의 방법이 되었다.

남민시 동인들의 시는 이러한 삼민운동을 그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 3집까지 발간된 남민시 동인지의 제목이 『들 건너 사람들』(1집), 『빈 들판에 쓰러져 우는 사람아』(2집), 『풀씨여 풀씨여』(3집)가 된 것은 민족·민중·민주를 향한 시적 행동논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들/들판’이 민중의 생활 터전을 형상화한 객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사람’은 ‘들’에서 살아가는 민족구성원, 곧 민중을 뜻하며, 이들이 ‘건너/쓰러져 우는’ 형상은 1980년대 당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형상화가 된다. 1집과 2집의 표제가 이렇게 당대의 모순을 첨예화하고 있다면, 3집에서는 ‘들’과 ‘사람’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시켜 ‘풀씨’라는 생명

24)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발기문』, 동아일보사,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 운동』, 신동아, 1990, 221쪽

25) 김정환 외,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실천문학』 제5권, 앞의 책, 241쪽

력을 강조하는 표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1집과 2집이 87체제 이전의 현실 모순 속에서 발간된 것과 달리 3집은 6월 항쟁을 통해 확인한 민중의식의 성장과 전망을 담아낸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남민시 동인의 시적 세계는 현실생활의 역사적 측면에서 1~2집과 3집의 객관적 상황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민시 동인의 민족민중 의식은 1987년을 기점으로 숨고르기를 한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3집에 실린 작품들에서는 투사적 시 쓰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3집을 펴내는 남민시 동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3집을 낸다. 1, 2집을 내오면서 우리들의 따뜻하고 싶은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물음은 아직도 끝없다. 우리가 갈망하고 지지하는 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역할은 무엇일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그대로 3집에도 남아 있음을 본다. 그러나 부끄러운 대로 우리는 3집이 우리의 지속적인 자문의 한 결점으로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모든 버림받은 것들과 함께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벌써 시월이다.<sup>26)</sup>

1집과 2집에 비하면 3집을 내는 서문 격의 이 글은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간명하고 간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집과 2집에서 보여주었던 시대 인식과 역사적 당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1~2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지만, 의례적인 것으로 읽힐 뿐 “일단 시작한다”(1집), “따라서 우선 시작해야 할 일은”(2집) 같은 의지적 모습보다는 “읽혀지기를 기대한다”에서 보듯 수동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그렇다고 해서 3집이 민족민중 의식을 담아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시적 추동력보다는 현실 생활적 추동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였고, 삶의 열기가 문학적 열망을 압도하는 객관적 현실 조건이 남민시 3집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26) 『남민시 3집을 내면서』, 최동현 외, 『남민시3: 풀씨여 풀씨여』, 청하, 1987, 3쪽

### 3. 남민시 동인의 문학 운동과 지역성

1985년 1월, 남민시 동인은 『남민시1: 들 건너 사람들』을 펴내며 “2년 전 가을 모여 서로의 결국한 뜻과 이야기들을 나누며 ‘남민시’라는 이름 하나를 둘러메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았”<sup>27)</sup>이라고 동인 결성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민시 동인이 전북에서 문학 동인을 구상해 온 것은 1983년부터인데, 그 무렵은 80년대 운동에서 지역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근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1983년 ‘일과 놀이’ 소극장을 중심으로 민중문화운동이 전개되었고<sup>28)</sup>, 충남 지역에서도 1978년부터 시작된 문학동인지 『창 그리고 벽』이 1983년 『삶의 문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학이 지향해야 될 삶과 세상은 다수 민중들이 희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sup>29)</sup>함으로써 문학의 민족민중 운동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에서도 1985년 종합문화지 『남민』이 창간되었다.<sup>30)</sup> 『남민』은 “전북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문학동호인들의 작품발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기왕의 지역 문학지들의 문학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세웠다. 이렇게 운동으로서의 다양한 문학/문화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신군부는 1983년 학원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고 1984년 정치인들의 해금을 실시함으로써 정세를 유화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유화국면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남민시』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민시 동인은 “이전과 비교할 때 확연히 현장과 민중의 삶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세계상을 담지하고 있”으며 “장차 출현할 지역의 새로운 작가 조직의 모태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sup>31)</sup>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남민시』는 1980년대 전북지역 문학 운동의 구심점으로 작동하면서 1990년 이후의 전북 문학을 이끌어갈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27) 『남민시』 1집을 내며, 백학기 외, 『남민시1: 들 건너 사람들』, 동문선, 1985, 5쪽

28) 『지역 문화 운동의 논리와 과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지역운동과 지역실태』, 민중사, 1986, 52쪽

29)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 선인, 2016, 460쪽

30) 1984년 『남민』 발간을 위해 최준석, 정학수, 김홍수, 임옥상, 김익두 등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편집동인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1년여의 기획과 집필을 통해 1985년 『남민』 창간호를 출간하고, 2년 후인 1987년에 『남민』 2집, 1989년에 『남민』 3집을 출간한 후 편집동인이 해산되었다.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012, 445-446쪽

31) 같은 책, 447쪽

## 1) ‘남녘의 지평’ 확산을 위한 문학 운동

1980년대 문학의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시의 번성, 부정기 간행물 MOOK의 발간, 문학동인 활동의 증가, 지역문학 운동의 확산, 다른 장르와 매체 간의 연대를 통한 문학 외연의 확장”<sup>32)</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운동의 매개가 되었던 것은 시 장르이다. 당시 시 장르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라는 시대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설을 비롯한 서사 장르가 시대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긴 호흡 속에서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데 반해, 시 장르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재빠르게 포착하고 그 모순을 신속하게 형상화하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문학이 야말로 시대의 상처를 먼저 아파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징후를 먼저 파악하는 양식이며, 시가 산문보다 현실의 고통을 감각적 직관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sup>33)</sup>이라는 인식이 1980년대 시 동인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학사는 1980년대를 억압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응전의 담론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까닭에 1980년대 문학 무크 운동을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민족문학 운동의 연장선으로 간주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80년대와 무크지를 부정적 현실에 의해 추동된 문학주체들의 응전의 방식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보다 그동안 소외된 문학 제도 바깥의 ‘타자’들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좀더 당대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sup>34)</sup>라는 관점에서 1980년대 무크지 운동의 성과를 정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들어 무크지 등을 통한 소집단 문학 운동의 기원이 당대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시대사적 응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장에 대한 반성적인 운동, 주류를 형성했던 문단과 문학에 대한 비판적 대안 운동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다. 특히 무크지 운동이 지역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류문학에 대한 대응과 대안의 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민시 동인의 활동도 민족문학 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는 전북 지역의 삶과 문화를 문학적 대안으로 제안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남민시 1집과 2집 표제에 ‘들’과 ‘사람들’을 담아냄으로써 1

32) 심선옥, 『19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50집, 상허학회, 2017, 453쪽

33) 김성수, 『1980년대 동인지·무크 문학의 운동성』,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44쪽

34)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호, 한국시학회, 2013, 86쪽

집 『서문』에서 말하는 “남녘의 지평”의 역사성을 피력하고 있다. 1집에 참여하고 있는 백학기의 『녹두꽃 역사』, 박배엽의 『산에 들에서』, 최동현의 『어전리』 연작 등이 대표적이다.

내가 馬로 떠돌아다녔을 때에  
충청도와 전라도  
琿準이 만났을리야  
쓰디쓴 녹두꽃 歷史 잊었을리야

가고 없는 저문 들가  
어두운 얼굴로  
사내 되어 井邑詞나 부르면  
강녘과 산허리에  
어느 역사 눈뜨며 걸어올까

이 들끓는 가슴에  
이 무덤 파헤치면  
사내들 얼굴 들고 나오고  
아낙들 젖 물린 채 춤추며 나오고

온갖 것들 서리서리 나올까  
그리하여 산밭에 목소리 남아서  
팽과리 치며 치며  
제 형상 갖춰 집 지을까 역사 지을까

내가 馬로 떠돌아다녔을 때에  
충청도의 삼  
전라도의 낮 내 등에  
푸르게 푸르게 서슬 아니 꽃혔을리야  
-백학기, 『녹두꽃 歷史』 전문(『남민시』 1집)

80년대를 지배했던 핵심 과제의 하나는 “민중적 민주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분단 극복의 의지”<sup>35)</sup>였다. 그것은 군부독재를 해체하고 민주주의

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였다. 특히 “민족국가 단위의 새로운 확대과정, 민족국가 상호간에 통합과정에서 민중적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평등적·민주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통합국가 또는 민중적 민주주의 국가”<sup>36)</sup>가 수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학기의 시를 비롯하여 남민시 동인의 작품에도 민족국가를 향한 분단극복의 실천적 행보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서정시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나’의 서사와 공동체의 서사를 동일화하는 점이라고 할 때, 이 시는 서정시를 가장 전형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나의 서사는 “봉준”의 “쓰디쓴 녹두꽃 역사”를 통해 형상화되는 민족공동체의 서사와 다르지 않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특정해 뱀으로써 시가 쓰인 1980년대와 그로부터 100여 년 전인 1880년대를 동시대성으로 압축하고 이를 통해 민중 중심의 세계인식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그럴 때 이 시는 기존의 세계인식 방법론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세계인식을 위한 운동의 미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읽힐 수 있다. “내가 馬로 떠돌아다녔을 때”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는 민중적 삶이 어느 때보다 곤핍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내면에는 “역사”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열렬했으며, 그렇듯 “들끓는 가슴에” “사내들”과 “아낙들”, 그리고 “온갖 것들 서리서리 나”오기를 바란다. 이러한 욕망의 이유는 민중들이 “제 형상 갖춰 집”을 짓고 “역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폭압적 지배질서에 대항하는 시적 형상화 전략의 하나로 민중의 삶과 의지를 연대해내는 혁명적 운동성을 담아내고 있다. 남민시 2집에 실린 서흥관의 『용광로』, 남민시 3집에 실린 서소로의 『노령의 땅1』 등의 시편들이 민중적 관점에서 민중의 삶에 각인된 역사성을 부각하고 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극복과 민중적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은 남민시 2집에서부터 피상적인 운동성에 기반을 둔 낭만적 민중운동으로 기울게 된다. 그것은 1980년대의 폭압적 현실 조건이 보다 견고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민시 동인<sup>37)</sup>의 성분 자체가 기층민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변화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민시 동인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다. 1980년대 문학이 나아갈 길이 “모든 분열의 아픔을 집중적으로 당하는 민중에 의한 민중문학이 아닐 수 없고 동시에 그 아픔을 온

35) 성유보, 『분단·사회·인간』, 『실천문학』 제5권, 1984, 181쪽

36) 같은 곳

37) 남민시 1집에는 백학기, 이병천, 정인섭, 박두규, 박배엽, 최동현, 박남준이 참여했고, 남민시 2집에는 이병천과 박배엽이 빠지고 서소로와 서흥관이 새로 참여했으며, 남민시 3집에는 김용택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다.

민족적으로 넘어서야 할 당위로 하여 민족문학<sup>38)</sup>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인 중심의 남민시 동인의 운동성은 낭만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그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법으로도 이 마음  
베지 못하네,  
두 눈 부릅떠  
제 갈 길 가며  
조선 팔도 떠도는 눈물이 되겠네.

살 만한 땅에 닿기 위하여  
이마로, 가슴으로,  
또 무릎으로,  
혈벗어 사무치며, 뉘우치며  
가는 길.

깃뻘힌 풀들의, 무섭고 아름다운  
새벽이 올 때  
흔백 불러 몸 밝히는  
들꽃이 되겠네.

-최동현, 『개망초2』 전문(『남민시』 2집)

남민시 동인의 작품성이 낭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운동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낭만성은 엄격한 형식과 격식에 반발하는 자유분방한 예술 운동에서 탄생한 미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분방함이 현실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역동적 힘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이격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발생한다. 남민시 동인의 작품들도 현실의 모순을 관념세계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개망초2』의 경우 민중의 모습은 “두 눈 부릅떠” “조선 팔도 떠도는 눈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들의 행보는 “살 만한 땅에 닿기 위하여” “혈벗어 사무치며, 뉘우치며”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떠도는 눈물”이나 “살 만한 땅” 같은 인식은 반민중적이다. 이

38) 백원담, 『인간해방의 정서와 의지의 형상화』, 김병걸·채광석 편, 앞의 책, 30쪽

러한 인식에는 “역사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처해 그에 상응하는 존재론적 성찰과 결단 없이 과거로부터 길들여진 관념적 대응만으로 동시대의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지식인시의 전가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서정성’을 내세”<sup>39)</sup>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남민시 동인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김해화의 『인부수첩』, 정명자의 『동지여 가슴 맞대고』, 최명자의 『우리들 소원』 같은 기층 민중 출신의 작품들이 지닌 “살아 있는 건강한 삶의 신선함”<sup>40)</sup>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최동현의 시에서 “혼백 불러 몸 밝히는/들꽃이 되겠”다는 인식이 동시대의 민중 모순에 대한 안이한 ‘관념적 대응’에 머무르고 만 것은 지식인시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남민시 동인의 민중주의적 민족문학 운동은 그 역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로 형상화해내는 방식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남민시 동인의 시 세계가 전북 지역에서 민중의 삶을 발견하고 민족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민’으로 명명한 그들의 존재방식에서 이미 그러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남녘’을 전북의 지역성으로 설정함으로써 남민시 동인은 남녘 민중의 역사적 지평을 개척하게 되었고, 그것 위에서 1980년대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문학의 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 동인이 모태가 되어 1987년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이후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인 단체인 전북작가회의로 성장할 수 있었다.

## 2) ‘남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운동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민중운동과 민족운동의 문학적 가치가 민족 현실의 역사적 당면과제를 해소하는 것에 열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독점의 현실적 억압 속에 놓여 있는 민중들의 새로운 삶을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1970년대를 관통하는 공업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과 민중의 삶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자본의 힘은 강력했다. 자본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장을 찾아서 도시와 공장 지대로 노동력이 몰려들었고, 그런 만큼 자본에서 소외된 노동현장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39)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김사인·강형철 엮음,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105쪽

40) 같은 책, 106쪽

남민시 동인들이 ‘농도(農道)’이자 ‘남도(南道)’로 인식한 전남북 지역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남도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남민시 동인의 문학적 시선이 집중되었고, 남민(南民)이라는 특수한 계급적 하위와 계층적 소외지대를 발견하게 되었다. 남민시 동인은 “우리 겨레는 땅의 심성을 몸으로 깊숙이 받아들인 민족이다. 너그러움과 여유와 풍요의 공동체를 이룬 먼 농경생활의 온갖 심성이 바로 땅의 그것이며, 퍽박과 착취의 세월 속에서도 눈물겹게 새 생명을 피어올린 끈질긴 힘도 땅의 그것이다.”라고 남민의 생명공동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땅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사랑과 정서의 진원지”<sup>41)</sup>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새 생명을 피어올린 끈질긴 힘’이 ‘땅의 심성’에서 비롯한다는 인식은 남민 의식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남민시 동인들이 농촌 현실의 피폐함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찾아내려는 시적 시도들을 보여주는 것은 남민 의식의 시적 형상화이기도 하다.

어느 거친 얼굴들이 흙바람을 맞던고  
 그을린 주름살 똥꽃같은 눈빛을 하고서  
 풀더미 베어날리듯 누렇게 논가에 날리듯  
 한꺼번에 아침을 기다려 별아래 쓰러지던고  
 밤마저 흙모래가 마당가 떡갈잎을 털고  
 방안 가득 석유그을음은 뜬눈으로 뒤척였으니  
 머슴새 가지 사이를 후비며 날 때마다  
 환청들어 행여 그인가 문열곤 하였네라  
 그들은 어느 산 어느 들을 지나는지  
 뎀병에 낫을 씻으며 듣고  
 피사리를 하다가도  
 달구지소리 발자욱소리에 고개들어 가슴설레였노라  
 길센의 풀잎들 매차게 흔들리고  
 나도 따를까  
 헛간의 낫들이 쇳소리를 내며  
 밤새 녹슨 날을 부딪쳐 울었다  
 -서소로, 『남민』 전문(『남민시』 3집)

41) 박두규 외, 『남민시 2집을 내며』, 앞의 책, 7쪽

이 시는 1980년대의 피폐해진 농촌의 삶을 회고적으로 발화한다. 통상적으로 회고의 형식은 사건의 시점으로부터 시간적 이격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사건의 발생 배경에서부터 발생 과정과 그 전부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사회역사적 논리와 원리, 그리고 사건에서 파생된 부차적 사건들까지 회고의 형식은 비교적 정연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서소로의 『남민』이 “나”으로 상징화된 울분과 분노의 힘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녹슨 날로 부딪쳐 울었다”라고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게 된 것도 이 시가 회고적인 화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적 형식은 남민시 동인뿐만 아니라, 1980년대 민중민족문학 운동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긍정적인 면에서 속으로 울분을 삭이고 그 힘을 응축시켜 장차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민중의 본질을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회고적 형식은 역사적 현장에 밀착하지 못한 지식인 시인이 역사적 현실 조건에 당면하여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1980년대 지식인 시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으로서의 현실 비판적 인식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한 걸음쯤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민중과 민족의 당면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회고적 형식 같은 간-직접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sup>42)</sup> 간-직접성은 민중의 삶을 내면화하거나 자기 삶과 동질화할 수 없었던 지식인 문학인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역사적 실천을 적극 모색하는 세계 인식 방법이었다. 따라서 80년대 문학에서 삶의 현실과 문학적 현실이 일치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민중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신경림 이래 ‘민중적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라고 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답이 통용되어 왔다. 그 답을 창작 주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진전시키면 이렇게 된다. 창작 주체는 현실적으로 시인·작가이다. 그런데 시인·작가는 ‘문화 지식인’이지 민중 자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화 지식인’인 시인·작가가 ‘민중적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존재 전이가 필요하다. 즉, 시인·작가는 자신의 사회적 존재에 대

42) ‘간-직접성’은 사회역사적 현실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주체가 자기모순이 아닌 타자의 모순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이념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경험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 인 세목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경험 방식인 것이다. 1980년대 민중 현실에 대한 시적 형상화의 경우 박노해 등의 민중주체 시인들의 직접성과 대비되는 지식인 시인들의 현실 인식 방식으로 간-직접성을 들 수 있다.

한 반성적 인식으로부터 민중 지향으로 나아가 민중적 삶에 자기 자신을 일치 내지 통합시킴으로써 민중의식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sup>43)</sup>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문화 지식인’으로서의 시인은 스스로 민중의식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적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를 성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역사적 당면 현실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민중문학, 민족문학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서소로의 시 『남민』에서 “나도 따를까”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인식’의 구체적 실현이 될 것이다. 김용택이 “형은 슬퍼 보였다/형의 등은 적막했고 돌부리에 채인 발에서는 피가 흘렀다/발 씻을 때 나는 보았다/무릎팍의 수많은 흉터들을,/나는 형의 아픔을 이해했다/형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그 해 그 겨울』, 『남민시3: 풀씨여 풀씨여』)라고 할 때, ‘남민’의 한 전형으로 형상화된 ‘형’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공유해내는 일도 민중의식을 획득하는 단순한 절차가 된다. 따라서 현실의 삶을 문학적 형상화 속에 시인의 삶으로 전이해내는 일은 지식인으로서의 시인들이 사회역사적 현실에 접속할 수 있는 간-직접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빈 들에 서면  
모든 비어 있는 것들이  
차근차근 생각나고  
그러고도 마음이 조용하니  
참 좋다  
빈 들에 서면  
텅 비어 있는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빈 들과 한통속이 되어  
넓게넓게 내려앉으니  
참 좋다  
아무 소리도 없고  
가끔 두렁의 흙부스러기나  
토독 떨어져 내릴 뿐  
나를 침범하는

43)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김병걸·채광석 편, 앞의 책, 128쪽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끝없이 풀려날 수가 있다  
해서 나는  
이 땅엔 없는 자유를  
잠깐이나마 이 땅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빈 들에 서면  
내 살아온 온갖 그리움이 오고  
눈물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흘릴 수 있으니  
참 좋다  
빈 들은  
이렇게 내가 머무르는 만큼씩  
나를 채워주지만  
하지만 빈 들은  
머무르게만 할 뿐  
스스로가 끝없이 열린 것처럼  
나를 열어주진 않고  
고단한 나라의 고단함을  
더욱 깊고 넓게 보여줄 뿐이다  
-박두규, 『빈 들』 전문(『남민시』 3집)

이 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빈 들”과 “참 좋다”는 시어의 반복이다. “모든 비어 있는 것들”을 중심 이미지로 삼고 있는 이 시에는 ‘비어 있는’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서술이 있다. 우선 “텅 비어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통해 “빈 들”과 자신을 일치시킨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빈 들”에는 “나를 침범하는/아무것도 없으니/나는 끝없이 풀려날 수가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 화자는 “내 살아온 온갖 그리움”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빈 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 후반부에 나타난다. “빈 들”은 “스스로가 끝없이 열린 것처럼/나를 열어주진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빈 들”과의 동일성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이 균열의 근본 원인은 “빈 들”로 상징화 된 민중적 삶과 ‘문화 지식인’인 시인의 존재론적 불일치에 있다. 따라서 “빈 들”이 “고단한 나라의 고단함을/더욱 깊고 넓게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진술은

남민시 동인들의 민족민중문학 운동의 한계를 압축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시인이 “빈 들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빈 들”을 일깨우는 생명력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빈 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 좋다”라는 세계 인식은 일차적으로 당면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자’로서 갖게 되는 낭만적, 피상적 반응처럼 읽힌다.

그렇더라도 이 시는 “빈 들에 서면” “이 땅엔 없는 자유를/잠깐이나마 이 땅에서/확인할 수가 있다”는 시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 들’과 ‘자유’를 연계하는 것은 1980년대의 사회역사적 현실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민중의 삶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민중문학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자유’를 민중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빈 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이 돌아날 가능성의 지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들에 서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고단한 나라의 고단함”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고단함의 저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의 박동이 있을 거라는 전망을 “참 좋다”라는 시행으로 드러낸다. “통치녀 많은 북녘 바람에/무총각 많은 남녘 바람에/좋지, 하늘남네 부시는 바람/너홀너홀 내 혼백도 태워 사르마/재가 되어 끝내 네 몸에 내려/저 들녘을 살라 올리마”(정인섭, 『남북국시대, 별경게 불지르니』, 『남민시』 2집)라며 “들녘을 살라 올리”는 생명에의 기대를 “좋지”라는 확인으로 전망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남민시 동인들은 남북분단이나 피폐화된 농촌 현실 등 1980년대의 역사적 당면 과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에는 ‘빈 들’로 상징되는 막막한 삶의 터전이 놓여 있지만, 그 ‘빈 들’은 사람이 떠나버린 황무지가 아니라 구속과 억압이 없는 삶의 지평이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남민시 동인은 1980년대라는 억압적 현실 조건 속에서도 ‘빈 들’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전망하였다. 이때 ‘빈 들’에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이 ‘남민’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서소로의 시 『남민』에서 “밤새 녹슨 날을 부딪쳐 울었”을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 지평인 ‘빈 들’을 민중의 삶을 살려내는 터전으로 개척해갈 것이다. 그 ‘빈 들’을 향해 “먼 새벽은 억새풀 사이/강 건너에서 다가오고 있”(백학기, 『셋별』, 『남민시』 3집)다는 전망 속에 남민시 동인이 지향했던 문학 운동의 한 전형이 압축되어 있다.

#### 4. 맺음말

198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방위에 걸쳐 운동성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 문학 운동은 두 가지 큰 특징을 띠는데, 하나는 비정기간행물 무크를 기반으로 한 소집단문학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학 운동이었다. 이는 1980년대의 사회역사적 당면 현실과 긴밀하게 관련된 현상이다. 강화된 정치적 중앙집권화와 경제적 편중은 필연적으로 지역 소외를 야기했다. 정치경제적 기반의 붕괴 속에서 지역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당면 과제 속에서 문학은 삶을 복원하고 재생함으로써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당한 민중과 민족구성원들의 생명 활동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집단 문학 운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산된, 그러나 응집된 형태의 응전이였다. 강한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문학 주체는 몸집을 줄여 운동의 속도를 높여야 했다. 그런 점에서 무크는 빠르게 변하는 1980년대 현실사회를 반영하는데 적합했고, 지역 운동은 권력이 집중된 중앙에 대한 대안이 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1980년대 운동성의 특징으로 무크를 통한 민첩한 현실대응력을 갖추는 것과 대응의 거점으로 분산된 응집 지역을 구축하는 일을 내세울 수 있다.

남민시 동인도 1980년대 문학 운동의 형식과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남민시 동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전북 지역의 생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농업을 중심에 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남민시 동인이 내세운 ‘남민’이 무너지가는 삶의 주체를 환기해내는 형식으로 기능한다면, 동인지 1집과 3집의 제목에 등장하는 ‘들(판)’에서는 ‘남민’의 존재 근거가 되는 삶의 토대이자 내용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남민시 동인이 단순히 전북 지역 민중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1980년대 우리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현실과 전북 민중의 삶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했고, 전북 민중의 삶을 회복하고 남민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았다.

남민시 동인은 남민 의식으로 상징되는 전북의 민중 역량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민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투쟁력을 문학적으로 포섭해 낸 5월시 동인의 경우처럼, 지역의 역동성으로 1980년대라는 민족적인 당면 현실을 극복해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민시 동인은 1980년대 전북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

후 전북 지역에 새로운 문학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문학의 가치를 사회역사적 운동으로 지속해냈다. 남민시 동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북작가회의는 1990년대 이후 전북 지역 문학의 한 축으로 성장했고, 문학의 생명력은 사회역사적 당면 현실에 대한 대응이자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민시 동인이 1980년대 사회역사적 현실에 대응하고자 했던 남민 의식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했다. 남민 의식은 1980년대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유효한 현실 대응 방식이 아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북의 문학이 사회역사적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운동의 동력으로 남민 의식이 작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민 의식은 여전히 전북 문학의 저변에서 지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에서 남민 의식의 특수한 양상을 탐색하고, 그것이 전북과 1980년대라는 구획된 시대성을 넘어 보편적인 문학 운동의 동력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남민시 동인의 문학적 운동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그러한 문학 운동을 이끌어 낸 전북의 민중 의식, 즉 남민 의식에 대한 당대적 의미와 보편적 의의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백학기 외, 『남민시1: 들 건너 사람들』, 동문선, 1985.  
박두규 외, 『남민시2: 빈 들판에 쓰러져 우는 사람아』, 청하, 1986.  
최동현 외, 『남민시3: 풀씨여 풀씨여』, 청하, 1987.

### 2. 논저

-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호, 한국시학회, 2013, 83-104쪽.  
김병걸·채광석 편,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김사인·강형철 엮음,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김성수, 「1980년대 동인지·무크 문학의 운동성」,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김정환 외, 「80년대와 지방문화운동」,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84.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대전·충남민주화운동사』, 선인, 2016.  
동아일보사,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 운동』, 신동아, 1990.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2』, 창작과 비평사, 1983.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3』, 창작과비평사, 1984.  
성유보, 「분단·사회·인간」, 『실천문학』 제5권, 1984, 146-182쪽.  
심선옥, 「1980년대 시 동인지 운동과 ‘5월시’」, 『상허학보』 50집, 2017, 453-489쪽.  
안병무, 「민족자결의 민족주의 운동」, 『실천문학』 제5권, 실천문학사, 1984.  
에리히 아우얼바하, 김우창·유종호 옮김, 『미메시스: 서구문학에 나타난 현실묘사』, 민음사, 1979.  
이경철, “『창비』 『문지』 잘라라-80년 정간물 폐간 회오리”, 중앙일보, 1991. 5. 3.  
이문영, 「80년대의 본질과 민주화」, 『민중』 제2권, 청사, 1985.  
이성욱, 「소시민적 문학론의 탈락과 민족문학론의 분화」,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9.  
장석주,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4』, 시공사, 2000.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012.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198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지역운동과 지역실태』, 민중사, 198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철학소사전』, 동녘, 1991.

<Abstract>

## **A Study on the Movement of Jeonbuk Literature in the 1980s**

- Focused on Nammin poetry coterie -

Moon, Shin\*

This study explores the literary movements of “Nammin” consciousness as the peculiarities of Jeonbuk in the flow of ethnic literature and folk literature in the 1980s. The 1980s was the most active period in all of our societie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 the literature sector, small group movements based on non-periodical Mooks and regional movements were found.

Nammin poetry coterie(남민시 동인), formed in Jeonbuk, is not far from the form and content of the literary movement in the 1980s. They noticed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way of life centered on agriculture during industrialization. In the process, he discovers the folk subject of 'Nammin' and develops the literary movement through 'field' which is the basis for their existence and survival. This did not mean that Nammin poetry coterie focused on the people of Jeonbuk. They recognized that the lives of the people of Jeonbuk were a concrete aspect of the social and historical reality that our nation faces in the 1980s. Therefore, restoring the lives of the people of Jeonbuk and expanding the consciousness of South people would be the driving force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our people.

In this way, Nammin poetry coterie formed the foundation for the movement to respond to the current reality and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reality through literature by embodying the people's capacity of Jeonbuk, which is symbolized by the people's consciousness. Nammin poetry coterie, who gave vitality to Jeonbuk literature in the 1980s, later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social and historical movement through literature by organizing a new literary organization in Jeonbuk. They are constantly emphasizing the social role of literature in that the vitality of literature should be a response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realities and a movement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reality.

Key Words : Nammin poetry coterie(남민시 동인), Literary movement, Jeonbuk region, 1980s, Nammin consciousness(남민 의식), National literature, literature coterie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reative Writing, Woosuk University